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 08월 05일

HANA Global Weekly



하나 하나증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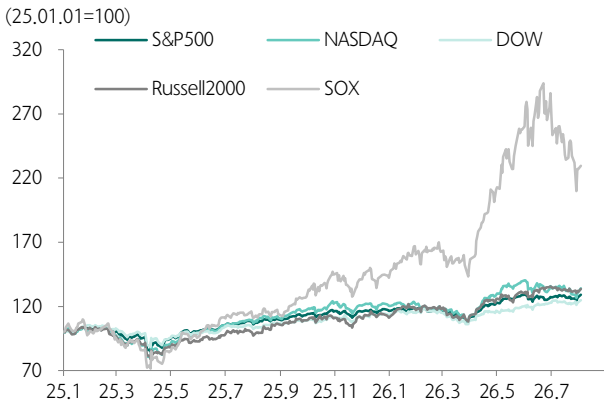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동향

- 미국 증시는 FOMC 이후 추가 긴축 우려가 일부 완화됐음에도 장기금리 급등과 미-이란 갈등 재부각으로 하락세를 보임
- 이후 안정적인 물가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에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완화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급락했던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음
-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발표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하였고 빅테크 강세가 이어지며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하였음

종가 기준일: 2026.08.03

미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S&P500	7,600.5	1.5	2.5	1.6	11.0
	NASDAQ	25,913.9	2.1	3.9	0.3	11.5
	DOW	53,178.4	1.3	1.9	0.5	10.6
	Russell2000	2,981.9	1.7	1.2	(0.5)	20.2
	SOX	11,430.4	1.1	(1.1)	(9.5)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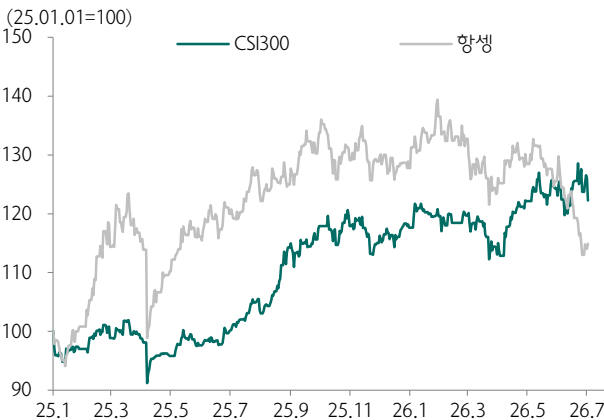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증시 동향

- 3분기 중국 증시는 대외 테크 악재와 포지셔닝 충격이 정점을 통과한 이후, 8월에는 실적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9월부터는 자체적인 상승 동력을 확보하는 흐름을 예상
- 8월에는 정책 모멘텀 재개, 특히 재정 집행과 증시 안정화 조치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관 자금 유입(ETF)과 안정적인 신용 환경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할 전망
- 하반기 본토 테크주의 상대적 강세와 주도주 복귀 예상. 다만 테크 내에서도 메모리보다 장비 업종 선호, 동시에 홍콩·금융·소비 등 안정형 포지션에 대한 비중 확대도 함께 나타날 것. '본토 테크 지수 투자+홍콩 알파' 투자 전략 제시

종가 기준일 : 2026.08.04

중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Wind,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CSI300	4,600.9	1.3	0.7	(5.0)	16.9
	항셱	25,852.9	(0.6)	2.1	10.7	28.9

자료: Wind,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미국 의회 여름 휴회	8/10~9/11	00:00	★★	미 의회 휴회로 입법 정책 공백기
OPEC, IEA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8/12	19:00	★★	세계 석유 수요 성장 전망치 하향 여부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8/12	21:30	★★★★	지난달 CPI, 에너지 가격 하락에 MoM -0.4% 하락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8/13	21:30	★★★★	지난달 PPI, 에너지 가격 하락에 MoM -0.3% 하락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투자 유망 ETF

KBWB (Invesco KBW Bank ETF)	CHAT (Roundhill Generative AI & Technology ETF)	CIBR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DRAM (Roundhill Memory ETF)	GRI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 Index Fund)	XBI (SPDR S&P Biotech ETF)

투자 유망 종목

알파벳 (GOOGL.U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AMD (AMD.US)	캐터필러 (CAT.US)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	유나이티드 렌탈스 (URI.US)	블룸 에너지 (BE.US)	텐센트 (0700.HK)	바이두 (9888.HK)

실적 발표

기업명	티커	발표 날짜	컨센
AMD	AMD	8월 4일 장후	FY26 2분기 매출 112.7억, EPS 1.61 달러
일라이릴리	LLY	8월 5일 장전	FY26 2분기 매출 207.2억, EPS 5.98 달러
샌디스크	SNDK	8월 5일 장후	FY26 4분기 매출 81.8억, EPS 33.72 달러

금주의 리포트

기업/산업명	제목
마이크로소프트(MSFT.US)	Azure 성장 가속과 Copilot 확산 본격화
팔란티어(PLTR.US)	미국 사업 모멘텀 강화, 전망도 대폭 상향
Seagate Tech PLC. (STX.US)	수요와 가격결정력, 생산효율성 강화의 선순환
Meta Platforms Inc.(META.US)	본업은 양호했지만 FCF는 급감
엔페이즈에너지(ENPH.US)	SST는 빠른 응답 시간으로 차별화 목표
퍼스트솔라 (FSLR.US)	Section 232를 기다리며
이턴코퍼레이션 (ETN.US)	데이터센터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
중국 반도체	메모리 IPO 이후 증설 가속화는 로컬 장비주에 수혜
선도지능(300450.CH)	ESS와 전고체 배터리가 여는 새로운 성장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선진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세계	2.4	0.6	4.7	23.3	11.5	0.1	0.2	0.4	1.5	1.1	16.9	16.9	17.6	17.7	18.8	19.7	14.9	3.2	3.2	3.3	3.2	3.0	3.4	2.3	
에너지	2.7	10.9	-1.8	34.9	27.7	0.1	0.1	0.2	2.6	2.6	12.4	12.2	11.3	13.0	13.4	17.4	9.0	1.9	1.9	1.7	1.9	1.6	2.1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에너지, 정보기술
소재	0.8	-2.2	-3.9	25.7	6.2	0.1	-0.1	0.0	2.0	1.2	14.3	14.5	14.7	14.9	16.2	17.7	13.1	1.9	1.9	2.2	2.3	1.8	2.5	1.6	
산업재	2.1	-0.7	2.2	20.8	14.3	0.0	0.1	0.3	0.7	0.6	21.8	21.9	22.8	22.9	21.6	24.6	15.8	4.1	4.0	4.1	4.0	3.6	4.2	2.5	
자유소비재	7.4	4.4	2.0	9.3	-0.6	0.2	0.3	0.3	0.5	0.3	19.8	19.7	20.4	21.1	20.6	22.9	16.2	3.3	3.2	3.3	3.4	3.4	3.8	2.8	
필수소비재	-1.6	0.2	0.1	6.5	5.9	0.0	0.1	0.0	0.2	0.1	19.7	20.0	19.8	19.6	19.3	21.1	17.1	4.4	4.5	4.4	4.3	4.1	4.6	3.5	
건강관리	-2.8	-2.1	7.8	17.7	1.8	0.0	0.0	0.0	0.2	0.1	18.3	18.8	18.7	16.9	16.3	20.2	15.7	4.1	4.2	4.2	3.8	3.6	4.3	3.4	
금융	0.9	4.0	10.3	20.6	9.5	0.1	0.2	0.3	1.1	0.6	13.3	13.4	13.3	12.5	13.2	13.7	9.8	1.8	1.8	1.8	1.7	1.7	1.8	1.2	
정보기술	4.1	-2.1	9.2	39.8	23.1	0.1	0.3	1.0	2.9	2.2	17.7	17.4	19.4	19.9	27.5	29.6	16.9	6.8	6.7	7.4	7.1	7.5	8.5	5.4	
커뮤니케이션	5.6	2.7	-3.7	16.5	1.6	0.0	0.3	0.5	1.0	0.9	16.9	16.6	18.1	19.7	18.8	21.2	15.3	3.3	3.2	3.5	3.8	3.7	4.0	2.3	
유틸리티	-1.1	-2.2	-5.0	10.1	5.7	0.0	0.1	-0.0	0.4	0.1	16.4	16.7	17.0	17.1	16.1	17.5	12.5	1.9	1.9	1.9	1.9	1.8	2.0	1.4	
미국	2.3	1.5	5.0	21.8	10.9	0.0	0.2	0.4	1.2	0.9	19.7	19.7	20.3	20.5	22.0	22.9	17.2	4.5	4.5	4.6	4.5	4.5	4.8	3.3	
에너지	0.7	10.1	-0.3	37.0	30.4	0.1	0.1	0.3	2.2	2.2	14.7	14.4	13.3	15.4	15.5	21.1	10.3	2.4	2.3	2.2	2.4	2.0	2.6	1.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에너지, 소재
소재	-0.8	-3.4	-3.5	21.1	5.2	0.1	-0.1	0.0	2.0	1.2	15.5	16.1	16.1	16.1	19.1	21.4	15.2	2.5	2.6	2.7	2.8	2.5	3.3	2.0	
산업재	-0.2	-0.9	4.5	20.4	17.3	0.0	0.1	0.2	0.5	0.4	25.4	26.0	26.5	25.7	24.9	27.8	17.7	6.4	6.6	6.8	6.3	6.1	6.8	4.2	
자유소비재	10.0	3.4	0.6	12.7	1.8	0.3	0.3	0.4	0.8	0.6	22.8	23.1	24.3	25.7	25.7	30.1	21.0	6.1	6.0	6.4	6.6	7.3	8.8	5.9	
필수소비재	-0.7	-0.3	-1.4	7.5	8.8	-0.0	0.0	0.1	0.2	0.2	22.0	22.5	22.1	22.4	21.5	24.0	17.5	6.2	6.4	6.2	6.2	6.0	6.6	4.7	
건강관리	-0.9	-1.4	11.3	22.5	3.9	0.0	0.1	0.1	0.3	0.2	18.9	19.6	19.4	17.1	16.5	20.3	15.8	4.7	4.8	4.7	4.2	4.1	4.9	3.8	
금융	0.6	2.9	10.3	14.9	6.2	0.0	0.2	0.3	1.0	0.6	15.4	15.6	15.5	14.6	16.0	17.0	11.7	2.3	2.3	2.2	2.1	2.2	2.3	1.5	
정보기술	2.4	1.6	9.0	30.2	17.1	0.0	0.2	0.6	2.0	1.3	21.6	21.4	22.4	23.1	30.5	32.3	19.5	9.1	8.9	9.2	9.1	10.6	11.5	7.4	
커뮤니케이션	7.9	2.2	-4.8	23.2	4.1	-0.0	0.4	0.5	1.1	1.1	17.3	17.0	19.0	20.9	19.0	22.4	15.4	3.8	3.7	4.2	4.6	4.3	4.8	2.8	
유틸리티	-2.8	-2.9	-4.5	3.7	4.0	0.0	0.0	0.2	0.4	0.3	18.0	18.4	18.6	19.3	19.2	20.0	14.1	2.0	2.1	2.1	2.2	2.2	2.3	1.5	
일본	-2.5	-3.3	6.0	35.9	16.4	0.2	0.3	0.8	1.6	1.2	16.3	16.5	17.4	17.5	15.8	19.1	12.3	1.8	1.8	1.9	1.8	1.5	2.0	1.1	
에너지	-3.0	6.8	-8.4	57.5	13.7	-0.1	-0.4	-0.6	5.9	3.3	8.9	8.7	7.8	9.0	11.0	13.9	6.2	0.9	0.9	0.8	1.0	0.6	1.1	0.5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금융, 소재, 산업재
소재	-2.9	-7.8	-9.4	26.2	11.4	0.1	0.1	0.2	0.4	0.6	15.8	15.8	17.3	17.9	13.2	19.3	10.4	1.3	1.3	1.4	1.3	1.0	1.6	0.8	
산업재	-1.4	0.2	-2.0	33.3	12.9	0.1	0.1	0.4	1.0	0.9	18.0	18.0	18.4	19.8	16.3	22.2	11.6	2.0	2.0	1.9	2.2	1.6	2.3	1.2	
자유소비재	0.1	1.4	8.9	20.0	4.1	0.0	0.2	0.7	1.1	0.2	17.0	16.7	16.8	17.3	16.4	18.3	10.1	1.4	1.4	1.4	1.3	1.2	1.6	1.0	
필수소비재	-0.0	0.9	7.1	9.6	2.9	0.0	0.1	0.2	0.5	0.2	20.8	21.2	21.0	20.2	21.2	22.9	18.2	2.1	2.1	2.1	1.9	1.9	2.2	1.8	
건강관리	-2.0	-1.3	-2.5	10.1	-0.5	0.0	0.1	-0.4	0.4	0.1	17.4	17.7	17.8	16.6	16.9	23.4	15.2	2.0	2.1	2.1	2.1	2.0	2.5	1.8	
금융	-6.0	2.8	21.2	60.4	36.0	0.9	0.9	1.4	2.7	1.8	12.6	14.3	13.6	12.3	11.3	14.8	8.5	1.3	1.5	1.4	1.3	1.0	1.5	0.7	
정보기술	-3.2	-17.2	13.2	80.3	42.4	0.0	0.2	1.7	2.9	2.7	18.4	17.4	23.3	23.7	21.7	28.4	16.5	3.9	3.6	4.7	3.7	2.5	5.2	1.8	
커뮤니케이션	0.6	-1.1	2.4	7.2	0.8	-0.0	-0.2	1.1	0.5	1.1	18.9	18.6	18.5	23.2	19.7	28.3	16.3	2.2	2.1	2.2	2.4	2.9	3.4	1.5	
유틸리티	-3.2	-1.0	-1.9	30.9	2.4	-0.3	0.1	-0.1	-0.2	1.3	12.1	11.8	12.2	12.1	8.9	16.0	6.0	0.8	0.9	0.9	0.9	0.7	1.0	0.5	
유럽	1.1	-0.2	7.0	22.0	10.3	0.0	0.1	0.2	0.9	0.7	15.3	15.2	15.6	14.7	14.8	16.3	11.6	2.3	2.3	2.3	2.2	2.0	2.3	1.6	
에너지	3.1	16.0	0.5	42.5	35.2	0.1	0.2	0.4	4.0	4.0	9.3	9.0	8.2	9.6	10.4	13.1	7.6	1.4	1.4	1.2	1.5	1.3	1.7	1.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소재	2.0	-1.1	1.9	26.0	12.8	0.1	-0.0	0.3	1.4	1.0	16.0	15.9	16.1	16.3	16.3	17.9	12.5	2.0	2.0	2.0	2.0	1.6	2.1	1.4	
산업재	3.1	-1.2	5.1	19.3	11.7	0.0	0.1	0.2	0.6	0.4	21.9	21.7	23.0	22.0	21.5	24.2	15.3	4.0	4.0	4.2	3.9	3.6	4.2	2.6	
자유소비재	2.6	1.3	9.6	2.7	-8.8	-0.0	-0.0	0.0	0.1	-0.3	15.4	15.5	15.5	14.2	15.6	17.3	10.9	1.6	1.6	1.6	1.5	1.7	1.9	1.4	
필수소비재	1.1	-0.6	5.5	7.1	3.8	0.0	0.1	0.2	0.4	0.2	15.7	16.0	16.0	15.1	15.5	17.2	14.6	3.1	3.1	3.1	2.9	2.8	3.3	2.6	
건강관리	-3.6	-5.8	3.0	13.3	-1.2	-0.0	0.0	0.1	0.2	0.2	15.7	16.2	16.4	15.3	14.1	18.9	13.1	3.3	3.4	3.5	3.2	2.8	3.8	2.6	
금융	1.8	4.4	15.5	34.1	15.3	0.0	0.1	0.4	1.3	0.8	11.8	11.7	11.7	10.7	10.8	11.8	7.7	1.6	1.6	1.6	1.5	1.4	1.6	0.9	
정보기술	1.9	-9.5	9.6	49.5	28.7	0.0	0.3	0.5	1.0	1.0	27.0	26.5	32.6	28.7	25.4	34.4	19.0	5.7	5.6	6.7	5.7	4.5	6.9	3.5	
커뮤니케이션	-0.6	2.9	-0.1	-7.1	-0.5	0.0	0.1	0.0	0.7	0.2	15.4	16.0	15.4	15.5	18.9	19.7	12.6	2.0	2.1	2.0	2.1	2.1	2.2	1.2	
유틸리티	-1.8	-3.5	-2.9	26.7	13.4	0.0	0.1	-0.0	0.6	0.3	15.4	15.5	16.1	15.5	13.6	16.2	11.1	2.0	2.0	2.0	1.9	1.6	2.0	1.4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신흥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증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신흥국	0.5	-4.1	3.1	34.7	17.6	0.1	0.6	1.3	4.1	3.4	10.2	9.8	11.2	11.6	12.9	14.0	9.6	1.9	1.8	2.1	2.0	1.7	2.2	1.4	
에너지	2.7	6.8	-9.5	13.6	6.3	0.1	0.2	0.1	2.3	2.7	8.8	8.7	8.5	9.9	9.8	11.4	7.3	1.2	1.2	1.2	1.4	1.2	1.4	1.0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 정보기술, 에너지, 산업재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소재	2.7	-0.8	-8.5	30.0	-2.3	0.1	-0.1	-0.0	3.5	2.1	10.4	10.3	10.5	11.4	13.1	14.5	9.9	1.0	1.0	1.7	1.9	1.4	2.2	1.0	
산업재	4.0	-7.4	-9.7	22.4	9.6	0.1	0.5	1.9	2.9	3.0	11.6	11.3	13.3	17.0	14.6	17.4	11.0	2.0	1.9	2.2	2.4	1.7	2.5	0.7	
자유소비재	6.7	13.5	-1.0	-1.3	-7.9	0.1	0.3	0.0	-0.6	-0.2	13.4	13.0	12.5	14.1	12.9	16.0	10.8	1.6	1.5	1.4	1.8	1.8	2.2	1.3	
필수소비재	1.5	2.4	-2.9	-3.4	-3.6	0.0	0.1	-0.2	-0.1	0.0	17.9	17.7	17.7	17.9	18.3	20.7	16.5	3.0	3.0	3.0	3.2	2.9	3.3	2.4	
건강관리	0.9	0.1	1.5	-3.0	1.0	0.0	0.0	0.0	0.2	0.2	26.1	26.1	26.4	26.0	28.9	30.5	22.7	3.4	3.4	3.4	3.4	3.4	3.9	2.5	
금융	2.6	4.3	5.8	14.6	6.6	0.1	0.2	0.2	1.1	0.6	9.4	9.2	9.2	9.0	9.3	9.9	7.1	1.2	1.1	1.1	1.1	1.1	1.2	0.9	
정보기술	5.7	-13.7	10.5	113.9	62.1	0.4	1.3	2.9	8.6	7.5	8.9	8.4	11.2	11.0	15.7	18.0	7.8	3.4	3.3	4.2	3.9	2.7	4.8	2.1	
커뮤니케이션	5.7	7.0	2.5	-4.8	-13.0	0.0	0.0	0.1	0.8	0.2	13.9	13.4	13.3	14.1	17.1	19.1	12.8	2.2	2.1	2.1	2.2	2.8	3.0	1.9	
유틸리티	1.7	1.4	-6.3	10.8	4.2	0.0	0.1	-0.4	0.1	-0.5	12.3	12.2	12.3	12.6	11.4	13.6	9.7	1.3	1.3	1.3	1.4	1.1	1.4	1.0	
중국	3.6	8.3	-2.1	-1.3	-7.2	0.0	0.1	0.1	0.4	0.3	10.8	10.5	10.2	11.3	11.7	13.6	8.0	1.2	1.2	1.2	1.3	1.4	1.6	0.9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 금융, 자유소비재, 유틸리티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 에너지, 정보기술, 소재
에너지	0.1	7.9	-14.2	23.6	12.1	-0.0	0.0	0.4	2.1	2.1	9.2	9.1	8.4	10.9	9.1	12.2	5.6	0.9	0.9	0.9	1.1	0.8	1.1	0.7	
소재	1.8	1.7	-15.2	40.5	-12.3	0.0	-0.0	0.3	4.4	2.9	9.3	9.1	9.0	11.2	11.3	16.8	8.4	1.7	1.6	1.6	2.0	1.4	2.6	0.9	
산업재	2.8	1.9	-5.1	12.4	3.7	0.0	0.2	0.0	-0.1	0.3	11.7	11.5	11.8	12.6	10.4	13.2	6.8	1.2	1.2	1.2	1.3	1.0	1.4	0.7	
자유소비재	7.0	20.3	-3.4	-7.6	-12.0	0.1	0.3	-0.0	-0.9	-0.3	13.1	12.7	11.6	14.2	13.0	17.4	10.0	1.5	1.5	1.3	1.8	2.0	2.5	1.2	
필수소비재	2.1	9.3	-7.0	-12.7	-9.9	0.0	0.0	0.1	-0.1	-0.1	14.9	14.5	13.5	16.2	16.9	20.8	12.8	2.4	2.4	2.2	2.7	2.9	3.6	2.1	
건강관리	-1.5	-0.7	-2.4	-9.1	1.7	0.0	0.0	0.1	0.6	0.4	24.2	24.4	24.2	25.0	30.3	32.2	19.0	2.9	2.9	2.9	2.9	3.2	3.6	1.7	
금융	1.4	11.7	2.6	9.7	5.3	0.1	0.3	0.2	2.1	1.0	6.0	5.9	5.5	5.9	6.3	6.5	3.6	0.6	0.6	0.6	0.6	0.6	0.7	0.4	
정보기술	-3.4	-13.3	-2.7	-5.2	-2.1	0.0	0.2	0.5	0.1	0.1	22.8	23.3	27.2	26.7	24.6	30.3	12.8	2.9	2.9	3.3	3.0	3.3	4.0	1.3	
커뮤니케이션	8.7	11.0	4.5	-9.3	-17.9	0.0	0.0	0.1	0.8	0.1	12.8	12.1	11.8	12.8	16.5	19.7	11.2	2.0	1.9	1.9	2.0	3.0	3.2	1.7	
유틸리티	1.7	8.4	-5.3	-3.5	-2.7	0.1	-0.0	0.0	-0.9	-0.7	10.1	9.9	9.3	10.8	9.7	11.0	6.5	0.9	0.9	0.8	1.0	1.0	1.1	0.7	
인도	3.0	2.4	4.1	4.3	-2.0	0.0	0.0	0.1	0.5	0.3	20.5	20.0	20.1	20.2	22.3	24.5	18.4	3.0	2.9	2.9	3.0	3.4	4.0	2.8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 소재, 유틸리티, 금융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 필수소비재, 정보기술, 건강관리
에너지	3.3	1.1	-7.4	-2.6	-13.0	0.0	-0.2	-0.6	-0.2	-0.6	14.4	14.1	14.0	14.7	14.6	24.8	12.6	1.5	1.4	1.5	1.7	1.7	2.9	1.4	
소재	3.7	2.2	2.4	15.2	6.0	0.1	0.1	0.9	2.1	1.6	16.0	15.6	15.8	18.5	21.2	22.6	15.0	2.6	2.5	2.6	2.8	2.8	3.1	2.3	
산업재	2.6	-0.8	3.0	16.2	9.5	0.0	-0.0	0.0	0.3	0.1	34.8	34.6	35.5	35.4	34.0	40.9	27.0	6.6	6.6	6.9	6.9	6.8	8.5	4.9	
자유소비재	3.9	6.9	12.8	14.0	3.0	0.0	0.0	0.1	0.1	0.1	32.6	31.9	31.2	30.4	30.1	35.0	25.1	5.4	5.3	5.2	4.9	5.3	7.0	4.2	
필수소비재	2.5	-0.4	-2.9	-6.6	-6.2	-0.0	0.0	-1.2	0.1	0.0	40.4	39.1	40.6	28.2	45.7	56.5	23.8	8.9	8.7	9.1	9.5	10.0	12.1	8.2	
건강관리	2.0	1.3	11.0	13.7	13.7	0.0	-0.0	-0.0	0.1	-0.0	34.9	34.3	34.1	31.3	31.8	34.9	22.2	4.9	4.8	4.8	4.5	4.7	5.5	3.9	
금융	3.4	0.7	6.1	0.4	-4.1	0.0	0.1	0.2	0.6	0.4	15.7	15.5	16.2	15.6	17.7	22.1	14.5	2.1	2.1	2.1	2.1	2.6	3.3	2.0	
정보기술	4.3	14.4	3.5	-12.8	-20.2	-0.0	-0.0	-0.0	0.6	0.4	16.6	16.4	15.0	16.3	22.3	31.6	14.1	4.9	4.9	4.2	4.7	6.2	9.7	4.0	
커뮤니케이션	3.3	3.1	6.6	7.2	-4.9	0.0	0.1	0.5	1.2	0.7	30.2	29.4	29.9	32.8	44.1	82.9	28.8	6.0	5.8	5.9	6.6	8.4	19.6	4.6	
유틸리티	1.5	-0.7	-9.3	7.5	9.5	0.0	-0.0	0.0	0.1	0.1	16.2	16.1	16.3	18.0	15.4	21.9	12.3	2.0	2.0	2.1	2.3	2.1	3.1	1.6	
브라질	1.8	4.8	-7.2	37.3	14.7	0.1	0.2	-0.0	2.8	2.7	8.5	8.4	8.2	9.0	8.2	10.9	6.8	1.6	1.6	1.6	1.6	1.3	1.8	1.1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 소재, 자유소비재, 에너지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건강관리, 정보기술
에너지	5.3	15.3	-13.9	51.0	55.1	0.1093	0.5	-0.5	7.6	9.6	4.9	4.7	4.3	5.6	5.1	7.6	4.0	1.1	1.0	1.0	1.2	1.0	4.6	0.7	
소재	0.0	-0.7	-8.4	41.8	10.3	0.2646	-0.2	-0.0	1.2	1.1	7.9	8.0	7.8	8.3	6.2	9.1	5.0	1.4	1.4	1.4	1.5	0.9	1.7	0.8	
산업재	2.2	3.7	-0.5	27.4	5.1	0.0585	0.2	-0.1	1.1	0.8	16.6	16.7	16.9	16.7	16.4	24.6	15.0	2.1	1.9	2.0	1.8	1.7	3.6	1.4	
자유소비재	3.3	21.7	6.6	96.2	60.0	0.1674	1.4	1.7	4.6	4.1	10.1	10.0	9.8	11.4	9.7	14.2	6.6	1.8	1.8	1.5	1.8	1.1	1.9	0.8	
필수소비재	0.6	4.1	-4.0	25.2	5.9	0.0895	0.1	-0.2	-0.4	0.3	14.9	15.0	14.4	14.9	11.5	18.5	10.7	2.5	2.5	2.4	2.5	1.9	2.8	1.7	
건강관리	0.0	-3.0	-13.4	14.9	-9.5	-0.0280	0.2	-0.1	1.3	0.4	14.2	13.9	14.8	15.6	15.3	24.8	10.8	3.4	3.4	3.4	3.8	2.5	4.5	0.7	
금융	0.3	4.7	-3.4	31.9	7.2	0.0722	0.3	-0.0	2.2	1.4	9.1	9.2	8.9	9.3	8.7	11.2	6.6	2.0	2.0	1.9	1.9	1.7	2.3	1.1	
정보기술	0.0	0.0	0.0	0.0	0.0	0.0000	0.0	0.0	0.0	0.0	18.0	18.1	18.4	16.2	25.7	26.6	15.0	3.5	3.5	3.6	3.3	4.7	5.0	2.3	
커뮤니케이션	-3.9	-9.0	-21.2	9.8	4.2	-0.0537	0.1	0.0	2.3	1.7	10.8	11.0	11.9	13.6	13.3	15.7	10.4	1.7	1.8	1.9	2.2	1.8	2.5	1.0	
유틸리티	1.3	-0.7	-13.3	53.2	14.4	0.0277	-0.1	-0.7	2.4	1.1	12.4	12.3	12.4	13.1	11.7	14.5	8.6	1.6	1.6	1.6	1.6	1.2	1.8	0.9	

글로벌 스타일별 추이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세계	2.2	1.3	4.9	21.9	10.7	0.1	0.2	0.3	1.1	0.8	18.6	18.6	19.1	19.0	19.9	20.7	15.5	3.6	3.6	3.6	3.5	3.3	3.7	2.5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 중형주
대형주	2.4	1.4	5.2	22.9	10.8	0.1	0.2	0.4	1.2	0.9	18.8	18.8	19.4	19.4	20.3	21.4	15.8	3.9	3.9	4.0	3.8	3.7	4.0	2.7	
중형주	1.0	0.4	3.4	16.3	10.3	0.1	0.1	0.2	0.9	0.5	17.1	17.3	17.6	17.3	17.6	18.1	13.9	2.3	2.4	2.4	2.3	2.2	2.4	1.7	
소형주	1.5	-0.8	3.6	26.4	14.3	0.0	0.1	0.3	1.3	0.9	16.3	16.3	17.0	16.7	16.9	18.0	13.2	1.7	1.7	1.7	1.7	1.5	1.8	1.1	
성장	3.0	-0.4	3.8	19.2	7.3	0.1	0.2	0.3	1.0	0.7	23.9	24.0	25.6	25.4	27.5	28.8	21.9	6.4	6.3	6.8	6.5	6.7	7.2	4.8	
가치	1.4	3.0	6.2	24.5	14.2	0.0	0.1	0.4	1.2	1.0	15.2	15.2	15.2	15.4	15.2	16.6	11.7	2.5	2.5	2.5	2.4	2.1	2.5	1.6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 소형주
미국	2.3	1.5	5.0	21.8	10.9	0.0	0.2	0.4	1.2	0.9	19.7	19.7	20.3	20.5	22.0	22.9	17.2	4.5	4.5	4.6	4.5	4.5	4.8	3.3	
대형주	2.3	1.7	5.2	22.7	10.9	0.0	0.2	0.4	1.3	0.9	19.9	19.9	20.5	20.8	22.5	23.6	17.6	4.9	4.9	5.0	4.9	4.9	5.2	3.6	
중형주	0.4	0.2	4.2	15.6	10.9	0.0	0.1	0.2	0.9	0.5	18.4	18.6	18.9	18.7	19.5	20.2	14.9	2.9	2.9	2.9	3.0	2.9	3.1	2.2	
소형주	1.1	-1.2	4.5	31.6	17.3	0.0	0.1	0.4	1.6	1.1	17.1	17.3	18.0	17.7	18.4	21.1	14.8	2.0	2.0	2.0	2.0	1.8	2.2	1.4	
성장	3.1	0.3	4.0	20.4	7.5	0.1	0.2	0.3	1.1	0.7	25.4	25.6	27.4	27.1	30.2	31.5	23.0	8.7	8.6	9.4	8.9	9.6	10.4	6.3	
가치	1.1	2.7	6.2	22.5	14.3	0.0	0.1	0.5	1.2	1.1	16.1	16.2	16.1	16.6	16.9	18.1	13.1	3.1	3.1	3.0	3.1	2.8	3.2	2.1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 가치
일본	-2.5	-3.3	6.0	35.9	16.4	0.2	0.3	0.8	1.6	1.2	16.3	16.5	17.4	17.5	15.8	19.1	12.3	1.8	1.8	1.9	1.8	1.5	2.0	1.1	
대형주	-2.3	-3.6	7.4	39.2	17.8	0.1	0.2	0.7	1.5	1.1	17.1	17.0	18.0	18.0	15.9	19.5	12.3	2.0	2.0	2.1	2.0	1.6	2.2	1.2	
중형주	-1.0	-2.6	2.0	27.0	12.5	0.6	0.8	1.2	2.2	1.6	14.0	15.3	15.9	16.3	15.6	18.7	11.4	1.3	1.4	1.5	1.5	1.2	1.7	1.0	
소형주	0.9	-1.4	6.3	24.6	16.9	0.1	0.1	0.4	0.8	0.8	15.5	15.3	16.1	15.7	14.5	17.3	11.6	1.4	1.3	1.4	1.3	1.2	1.4	0.9	
성장	2.2	-7.0	2.9	29.1	13.9	0.1	0.2	1.0	1.5	1.5	19.9	19.6	22.0	23.9	21.2	25.8	16.4	3.0	3.0	3.3	3.0	2.7	3.5	1.9	
가치	-1.2	0.4	9.1	42.7	18.9	0.3	0.4	0.8	1.8	1.1	13.8	14.5	14.4	14.0	12.5	15.7	9.9	1.3	1.3	1.3	1.3	1.0	1.4	0.8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 소형주
유럽	1.1	-0.2	7.0	22.0	10.3	0.0	0.1	0.2	0.9	0.7	15.3	15.2	15.6	14.7	14.8	16.3	11.6	2.3	2.3	2.3	2.2	2.0	2.3	1.6	
대형주	0.8	-0.3	7.3	22.6	10.2	0.0	0.1	0.3	0.9	0.7	15.3	15.3	15.7	14.8	14.8	16.6	11.6	2.4	2.4	2.4	2.3	2.1	2.4	1.7	
중형주	0.7	0.2	5.5	19.3	10.5	0.0	0.1	0.1	0.7	0.4	14.9	14.9	15.2	14.2	14.2	15.2	12.1	2.0	2.0	2.0	1.8	1.7	2.0	1.4	
소형주	1.7	0.6	0.5	10.8	4.5	0.0	0.1	0.1	0.5	0.2	14.2	14.2	14.4	14.3	14.0	14.9	10.6	1.6	1.6	1.6	1.5	1.4	1.6	0.4	
성장	0.7	-3.4	5.6	15.2	6.8	0.0	0.1	0.4	0.8	0.6	20.1	20.1	21.4	20.4	21.0	25.1	18.8	3.7	3.7	3.9	3.7	3.7	4.4	3.4	
가치	1.6	3.0	8.4	29.1	13.8	0.0	0.1	0.2	1.1	0.8	12.4	12.4	12.3	11.7	11.4	13.0	8.6	1.7	1.7	1.7	1.6	1.4	1.7	1.1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 가치

Global Asset Fund Flow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Weekly Flows (ETF+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non ETF)			Comment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Assets	
주식	선진국	Global	9,795.18	11,547.13	8,500.22	13,052.28	0.13	0.15	7,596,116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채권, 신흥국 채권 위주 유입 흐름 전개 •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3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3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26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채권형 펀드는 6주 연속 유입세 지속
		NorthAm	30,717.55	21,245.01	37,590.88	29,997.95	0.18	0.13	16,560,397	
		W.Europe	(2,279.48)	(1,550.78)	(16.22)	8.11	(0.11)	(0.07)	2,098,805	
		Asia Pacific	1,458.35	328.26	1,220.77	262.72	0.11	0.02	1,285,446	
		선진국 합	39,691.61	31,569.60	47,295.65	43,321.06	0.14	0.11	27,540,764	
	신흥국	GEM	2,061.82	(356.97)	1,586.08	1,163.03	0.15	(0.02)	1,294,052	
		Asia ex-JP	21,847.07	5,090.42	22,213.56	5,966.53	1.49	0.35	1,404,335	
		EMEA	66.46	75.06	9.42	23.86	0.14	0.16	48,394	
		LatAm	42.10	(239.94)	(12.33)	(201.45)	0.07	(0.40)	59,773	
		신흥국 합	24,017.45	4,568.56	23,796.73	6,951.96	0.82	0.16	2,806,554	
채권	선진국	Global	1,799.57	2,490.92	769.02	893.41	0.14	0.19	1,317,742	
		NorthAm	8,275.02	15,549.31	7,571.62	12,720.97	0.15	0.28	5,669,182	
		W.Europe	2,530.60	2,961.58	703.66	1,286.30	0.13	0.15	2,011,721	
		Asia Pacific	158.42	187.82	107.32	130.97	0.21	0.26	73,926	
		선진국 합	12,763.60	21,189.63	9,151.63	15,031.64	0.14	0.24	9,072,571	
	신흥국	GEM	40.10	531.36	(456.47)	106.51	0.01	0.14	389,941	
		Asia ex-JP	(114.80)	983.55	117.80	1,094.61	(0.04)	0.38	265,576	
		EMEA	(173.78)	(12.91)	(33.60)	4.79	(0.37)	(0.02)	45,738	
		LatAm	5.32	51.67	(53.37)	52.21	0.03	0.31	17,196	
		신흥국 합	(243.16)	1,553.68	(425.63)	1,258.12	(0.03)	0.22	718,451	

자료: EPFR, 하나증권

글로벌 ETF 시장의 지역별 자금 흐름 점검

글로벌 수급: 지역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 지속

-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글로벌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150.6억달러의 매수세 유입이 진행되었고,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자금 유출 영향으로 -78.4억달러가 순유출
-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가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재개되면서 총 +143.9억달러가 순유입

글로벌 ETF 주요 지역별 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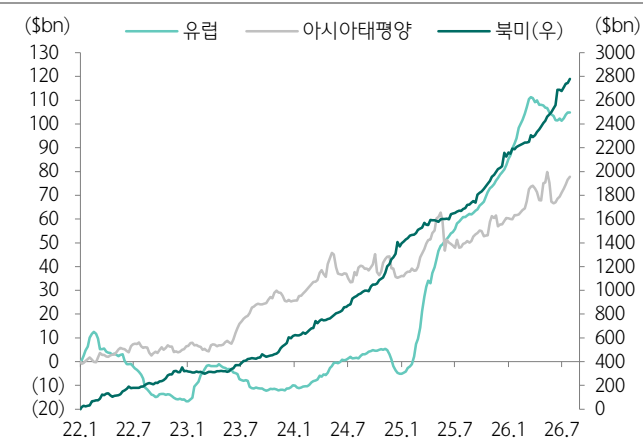
자산	지역 구분	세부 지역	Net Flows (\$MM)				총자산 (\$MM)	유입강도 (%)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주식 ETF	선진시장	글로벌	8,500	11,344	14,159	11,672	2,946,183	0.28
		북미	37,591	3,615	30,129	31,238	11,200,671	0.33
		서유럽	(16)	963	1,543	1,065	631,736	(0.00)
		아시아 태평양	1,221	2,023	1,718	1,858	962,352	0.12
	선진시장 Total		47,296	17,945	47,550	45,834	15,740,943	0.30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1,586	2,110	2,823	879	651,256	0.23
		신흥아시아	22,214	27,438	24,881	15,553	1,078,594	1.97
		EMEA	9	37	47	96	16,218	0.06
		남미	(12)	361	(565)	(219)	46,776	(0.03)
	신흥시장 Total		23,797	29,945	27,187	16,309	1,792,844	1.28
	주식 ETF Total		71,092	47,890	74,737	62,142	17,533,788	0.40
채권 ETF	선진시장	글로벌	769	1,193	825	1,469	220,745	0.35
		북미	7,572	9,084	11,028	15,140	2,800,658	0.27
		서유럽	704	1,156	1,155	2,716	336,027	0.21
		아시아 태평양	107	140	119	191	24,998	0.43
	선진시장 Total		9,152	11,573	13,127	19,516	3,382,428	0.27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456)	(32)	533	249	75,849	(0.60)
		신흥아시아	118	19	270	(776)	159,832	0.07
		EMEA	(34)	(127)	(203)	(91)	4,321	(0.77)
		남미	(53)	66	63	144	7,618	(0.69)
	신흥시장 Total		(426)	(74)	663	(474)	247,620	(0.17)
	채권 ETF Total		8,726	11,499	13,790	19,042	3,630,048	0.24

주1. 기준일: 26.7.29

주2. 유입강도(%)는 주간 유입액/ 전주말 총자산 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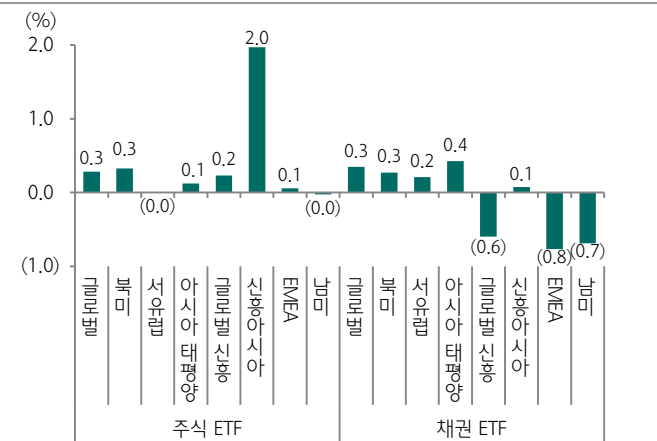
자료: EPFR, 하나증권

2022년 이후 지역별 누적자산 유입현황



자료: EPFR, 하나증권

주식 & 채권 ETF 지역별 주간 자금 흐름 유입 강도



자료: EPFR, 하나증권

주간 추천 글로벌 ETF 리스트

Investment Point: 단기 반등 VS 변동성 기준 고려한 종목 선택. IGV/XLK, KBEB, CIBR, PAVE/AIRR, DIVO/QDVO 등 활용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조정 후에 진행되는 단기 반등 기대와는 별개로 반도체 섹터(SMH/SOXX/DRAM)의 변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ETF들(IGV/XLK/VGT)과,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유연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등을 함께 활용할 필요. 더불어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수요 변화의 방향성이 반영될 KSTR/CQQQ(중국반도체/중국기술주) 등도 포지션을 분산하는 관점에서 고려
- 실적 발표 과정의 잉여현금흐름에서도 나타난 Hyperscalers 자금 조달 수요 및 대형 IB 딜 증가 흐름, 순환매 가능성 염두 하에 KBWB(대형은행)를, 해킹 이슈들과 함께 소프트웨어종 내에서 안정적 수익 기반이 부각되는 CIBR(사이버보안),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모멘텀이 유호한 PAVE(인프라)와 AIRR(중소형제조업), XL(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한다는 판단. 변동성이 반복되는 현 국면의 특성을 고려하면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도 적절

분류	종목코드 (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주식형	KBWB (Invesco KBW Bank ETF)	미국 은행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2026년 7월 16일	98.37 96.07	-2.34% -0.61%
주식형	CHAT (Roundhill Generative AI & Technology ETF)	생성형 AI 및 기술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에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2026년 7월 16일	83.73 81.96	-2.11% -0.38%
주식형	CIBR (First Trust NASDAQ Cybersecurity ETF)	사이버 보안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2026년 7월 16일	91.89 91.83	-0.07% 1.67%
주식형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2026년 3월 23일	75.80 84.67	11.70% 0.46%
주식형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글로벌 반도체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2025년 11월 24일	339.12 540.53	59.39% 45.09%
주식형	DRAM (Roundhill Memory ETF)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2026년 6월 22일	80.72 50.37	-37.60% -35.78%
주식형	GRID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전력망 및 스마트 그리드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2026년 7월 16일	177.67 179.35	0.95% 2.68%
주식형	XBI (SPDR S&P Biotech ETF)	바이오 테크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2026년 7월 16일	152.00 147.01	-3.28% -1.55%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 주식은 D-1일. 중국/일본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주3) 상대수익률은 벤치마크(BM)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주식형 BM은 MSCI AC World Index, 채권형 BM은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TR, 리츠 BM은 Bloomberg REIT Index, 대체투자 BM은 S&P GSCI Index 적용

투자유망종목

Investment Point: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AI 성장 지속 전망에 투자심리 개선. 반도체 실적과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 주목

- 글로벌 증시는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AI 성장 지속 전망에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되며 상승 흐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도 견조한 경기와 AI 투자 수익성 낙관론 부각되면서 빅테크 중심 랠리가 증시 상승을 견인. 이번주 AMD, 샌디스크 실적 발표 앞두고 데이터센터 매출과 AI 수익성, 실적 가이던스 등에 주목하면서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 실적 발표와 더불어 연준의 긴축 경계감 높아진 가운데 미 고용보고서(8/7일), CPI(8/12일) 등 경제지표에 주목할 필요. 투자유망종목은 씨게이트 테크놀로지(STX.US) 신규 편입
- * 차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텐센트(8/12)

종목	종목코드	국가	업종	시가총액 (조원)	편입일	편입 기준가	전일 종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알파벳	GOOGL.US	미국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669	3/10	306.36	373.51	21.92%	10.6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미국	정보기술	1,373	1/6	312.15	829.50	165.74%	155.75%
AMD	AMD.US	미국	정보기술	1,158	5/26	467.51	484.46	3.63%	2.50%
캐터필러	CAT.US	미국	산업재	560	1/6	616.10	830.88	34.86%	24.87%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	미국	정보기술	302	3/10	108.53	202.54	86.62%	75.33%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	미국	정보기술	276	8/4	831.06	신규	-	-
유나이티드 렌탈	URI.US	미국	산업재	101	7/28	1127.91	1116.02	-1.05%	-3.10%
블룸 에너지	BE.US	미국	산업재	94	1/6	103.87	218.32	110.19%	100.19%
텐센트	0700.HK	중국	온라인 서비스	821	7/7	461.20	487.60	5.72%	5.29%
바이두	9888.HK	중국	온라인 서비스	58	7/7	110.60	110.20	-0.36%	-0.79%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유럽 주식은 D-1일, 중국/홍콩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유럽(EUR), 중국(RMB), 홍콩(HKD)
주3) 상대수익률은 각 종목별 편입일 기준 벤치마크(BM) 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BM은 MSCI AC World Index

✓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제외종목: 애플 (종목 변경, 7/14~8/4, -4.38%)

알파벳 (GOOGL.US)**AI 포트폴리오 확대로 주력 상품 & 서비스 수요 강세**

국가	미국
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3,669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5E)	+29.0%
PER(2025E)	28.70
PBR(2025E)	8.50

- **Investment point**
2QFY26 Review 매출액 1,198억 달러(YoY +24.0%), EPS 9.11 달러 기록
구글 클라우드 매출 248억 달러(YoY +82%), 영업이익 88억 달러로 급증
FY2026 가이드선스 CapEx 중간값 2,000억 달러로 기존 1,850억 달러에서 상향 조정
- **Risk**
AI 수익성 부진으로 AI CapEx 둔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373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
PER(2026E)	76.60
PBR(2026E)	2.30

- **Investment point**
3QFY26 매출액 414.6억 달러(YoY +346%), Non-GAAP EPS 25.11 달러(YoY +1,215%) 기록
DRAM과 NAND 가격 전분기 대비 각각 60% 초반, 80% 중반 상승하며 서프라이즈 실적에 기여
4QFY26 가이드선스 매출액 490~510억 달러, GPM 86%, EPS 30~32달러 제시
- **Risk**
전방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AMD (AMD.US)**CPU, GPU, APU, DPU 등 사업 영위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1,158
편입일	5월 26일
EPS증감율(2026E)	+96.9%
PER(2026E)	48.16
PBR(2026E)	9.88

- **Investment point**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서버 CPU TAM 2030년까지 2,110억 달러 규모 전망
TSMC 2나노 공정 활용한 차세대 CPU 생산 확대하고 대만 AI 부문에 100억 달러 규모 투자 감행
올해 1분기 서버용 x86 CPU 부문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46.2%로 YoY +6.8%p, QoQ +4.9%p
- **Risk**
빅테크의 CapEx 투자 둔화 및 AI 수익화 부진에 GPU, CPU TAM 축소

캐터필러 (CAT.US)**CPU, GPU, APU, DPU 등 사업 영위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560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27.4%
PER(2026E)	37.0
PBR(2026E)	20.1

- **Investment point**
1QFY26 매출액 174억 달러(YoY +22%), OPM 17.7%, EPS 5.54 달러(YoY +30.4%) 기록
데이터센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대형 엔진과 터빈 수요로 전력 부분 +41% 성장
수주잔고 630억 달러로 전년대비 79% 성장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 **Risk**
AI 투자 및 리쇼어링 수요 감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US)**엔드포인트, 클라우드 워크로드, 신원 및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 제공 보호 서비스 제공**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302
편입일	3월 10일
EPS증감율(2026E)	30.19
PER(2026E)	89.40
PBR(2026E)	19.38

- **Investment point**
1QFY27 매출 13.86억 달러(YoY +26%), 조정 EPS 1.10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며 성장세 지속
성장 동력 부문인 클라우드 보안, 차세대 아이덴티티, 차세대 SIEM 부문이 고성장 견인
모든 에이전트 통제하고 방대한 데이터 활용하는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서 보안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 **Risk**
AI 기술 개발로 인한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대체 우려 확대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STX.US)**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용 대용량 HDD와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을 개발·제조하는 저장장치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276
편입일	8월 4일
EPS증감율(2026E)	86.40
PER(2026E)	29.90
PBR(2026E)	31.80

- **Investment point**
4QFY26 매출 36.3억 달러(YoY +48.5%), 조정 EPS 5.71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
HAMR 기반 Mozaic 플랫폼의 고용량 제품 전환과 공급 제약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FY2027 외형 및 이익 성장 전망. 1QFY27 가이드는 매출 41억 달러, 조정 EPS 7.30달러 제시
- **Risk**
AI 인프라 투자 둔화와 클라우드 고객의 재고 조정, HDD 가격 하락 및 HAMR 제품 양산 지연

유나이티드 렌탈(URI.US)**건설·산업·인프라 현장에 일반 및 특수장비 렌탈과 작업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장비 렌탈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101
편입일	7월 28일
EPS증감율(2026E)	+16.3%
PER(2026E)	23.5
PBR(2026E)	7.2

- **Investment point**
2Q26 매출 44.1억 달러, 조정 EPS 12.76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렌탈 매출은 전년 대비 12.7%, 특수장비 렌탈 매출은 24.8% 증가
대형 프로젝트와 고객 수주잔고 확대를 기반으로 2026년 매출 가이드를 175억~178억 달러, 조정 EBITDA를 79.8억~81.3억 달러로 상향
- **Risk**
비주거 건설경기 둔화 시 장비 가동률과 렌탈 단가 하락 가능

블룸 에너지 (BE.US)**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과 전해조 개발, 제조, 판매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94
편입일	1월 6일
EPS증감율(2026E)	+177.6%
PER(2026E)	123.5
PBR(2026E)	55.0

- **Investment point**
1QFY26 매출액 7.51억 달러(YoY +130.4%), EPS 0.44 달러(YoY +1,366.7%)로 컨센서스 대폭 상회
온사이트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블룸 에너지의 에너지 서버가 디지털 시대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최근 데이터센터 관련 서비스 계약 평균 10~15년으로 기존의 6~7년 대비 증가
- **Risk**
타 전력 발전원 공급 병목 완화에 다른 SOFC 수요 둔화

텐센트(0700.HK)**신규 LLM 공개로 AI 경쟁력 강화,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환원 의지 재확인**

국가	중국
업종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821
편입일	7월 7일
EPS증감율(2026E)	11.88
PER(2026E)	18.77
PBR(2026E)	3.75

- **Investment point**
• 혼원 Hy3 출시로 AI 모델 경쟁력이 재입증되고 있으며, 전 사업부에 자체 AI 모델 탑재로 AI 인프라 비용 절감 진행 중
• 상반기 누적 자사주 매입 244억 홍콩달러로 강력한 주주환원 지속.
- **Risk**
AI CAPEX 확대에 따른 단기 FCF 감소

바이두(9888.HK)**쿤룬신 IPO로 숨겨진 AI 칩 가치 부각**

국가	중국
업종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58
편입일	7월 7일
EPS증감율(2026E)	26.36
PER(2026E)	29.52
PBR(2026E)	0.90

- **Investment point**
• 쿤룬신 IPO 추진으로 AI 칩 사업의 독립적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 바이두 본체 대비 칩 자회사만으로 도 상당한 숨겨진 가치 존재
• 텐센트가 이미 쿤룬신 고객사로 확보, 바이트댄스도 채택 검토 중.
- **Risk**
광고 수익 부진, 쿤룬신 IPO 일정 지연 가능성

2026년 07월 30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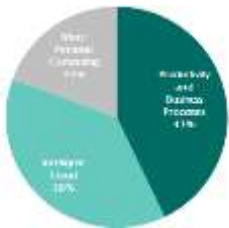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555.13 USD
CP(07.29) 390.54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microsoft.com
시가총액(십억USD)	2,900.0
시가총액(조원)	4,185.6
52주최고/최저()	555.45/349.2
주요주주 지분율(%)	
The Vanguard Group	9.67
BlackRock	8.1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6.0 (9.9) (23.9)
상대	7.6 (14.9) (38.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281,724	331,839	384,869	456,148
영업이익	128,528	155,237	178,947	210,162
순이익	101,832	133,749	145,476	169,269
EPS(USD)	13.70	17.95	19.51	22.88
EPS(YOY, %)	15.5	31.6	8.7	17.3
ROE(%)	33.3	34.0	27.5	25.8
PER(배)	36.3	23.4	201	17.2
PBR(배)	10.8	7.1	5.0	4.0
배당률(%)	0.7	0.9	1.0	1.1

주: 조정(Non-GAAP) 실적 기준

자료: 마이크로소프트, Bloomberg, 아나중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마이크로소프트(MSFT.US)

Azure 성장 가속과 Copilot 확산 본격화

주요 실적 지표와 가이드언스 시장 기대치 상회

FY26년 4분기(6월결산) 주요 실적 지표와 시장에서 주목하는 상세 지표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1) Azure 매출 성장 43%로 가이드언스(39~40%) 상단을 3ppt 상회했다. 시장 예상(1ppt 상회) 대비 상회폭 확대가 긍정적이다. CPU/GPU 효율성 개선, 신규 Capa 가동 속도 개선, GitHub Copilot 과금모델 변경 등이 주요인이다. 2) 1분기 Azure 성장 가이드언스를 45%로 제시, 시장 기대치를 여유 있게 상회했다. 4분기 강한 성장에도 기존 전망대로 FY27년 상반기 성장 가속화 전망을 유지한 점이 고무적이다. 신규 Capa 가동 속도 개선과 설비 효율성 개선으로 매출 전환 가속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M365 Copilot 유료 좌석수가 3천만을 초과, 전분기 대비 1천만을 추가하면서 순증분이 QoQ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시장의 우려 중 하나가 Copilot 유료 고객수 증가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었고, 4분기 시장 기대치가 2.6천만 수준임을 고려하면 Copilot 성장에 대한 시장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4) 클라우드 GPM 65%로 예상치(64%)를 상회했으며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프라 투자확대와 비용 증가로 클라우드 마진의 예상치 대비 방어 여부에 대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클라우드 전반의 효율성 개선과 Copilot 일부 사용량 기반 과금제 전환 등을 바탕으로 우려 대비 마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Y2026년 Capex 투자 계획 유지

FY26년 4분기 Capex는 410억 달러(금융리스 56억 포함)로 YoY 70% 증가했다. MSFT는 FY27년부터 데이터센터와 사무실 건물 내용연수를 변경(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 데이터센터 리스 상당 부분이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로 이동된다. 이로 인해 투자 규모 계획은 변화 없으나 회계 기준 상 CY2026년 Capex 전망치를 기존 1,90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로 조정했다. FY27년 1분기 Capex 가이드언스는 500억 달러 초과를 예상했으며, FY27년 연간 Capex는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언급했다. 4분기 FCF는 196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FY27년에 Capex 증가에도 FCF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제시했다. 과도한 Capex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하여 MSFT는 수명이 짧은 연산 장비가 Capex 비중이 높기에 수요가 감소하면 최대 원가 항목부터 줄이면서 대응할 수 있으며, 부품값 상승은 신규 계약 가격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핵심 의문들에 대해 긍정적 확인

이번 실적을 통해 시장에서 주목하는 핵심 의문들이 긍정적으로 확인되었다. 1) 확보 용량의 매출 전환 개선과 Azure 성장 가속으로, AI 인프라 구축이 곧바로 성장률로 이어지는 구조, 2) Copilot 수익화 지연 우려를 완화하는 지표 (유료 좌석 순증 가속, 파일럿에서 전사 배포로 전환, 사용량 기반 과금 전환 효과), 3) 투자 확대와 비용 증가에도 안정적인 수익성 방어력이다. 다각화된 대규모 사업 구조로 인해 AI 수익화가 실적에서 확인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이 그 동안 주가 부진 요인이었다. AI 경쟁 구도에서 MSFT의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검증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Copilot의 제품 경쟁력과 수익화 성과 역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주가에는 관련 우려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은 우려를 완화하고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8월 4일 | Global Equity

팔란티어 (PLTR.US)

미국 사업 모멘텀 강화, 전망도 대폭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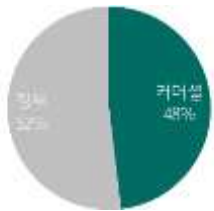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93.14 USD
CP(8.3) 147.76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palantir.com
시가총액(십억USD)	301.2
시가총액(조원)	430.5
52주최고/최저(USD)	207.52/106.37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47
블랙록	8.23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2.8) (20.4) (21.8)
상대	(4.4) (30.3) (41.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866	4,475	7,821	11,110
영업이익	310	1,414	4,603	6,667
순이익	1,002	1,916	3,903	5,286
EPS(USD)	0.41	0.75	1.52	2.08
EPS(YOY, %)	56.2	82.9	102.7	36.8
ROE(%)	10.9	26.2	37.0	33.5
PER(배)	385.4	279.2	83.5	59.1
PBR(배)	35.4	57.3	26.6	17.4
배당률(%)	0.0	0.0	0.0	0.0

주: 영업이익, 순이익은 조정(Non-GAAP) 기준
자료: 팔란티어,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미국 커머셜 149%, 전체 매출 성장 93%로 가속화, Rule of 40 155pt (컨센 138)

2분기 주요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시현을 이어갔다. 매출액 19.4억 달러로 YoY 93% 성장, 사상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조정 OPM 62%를 달성, 'Rule of 40'는 155pt(컨센 138)로 12개 분기 연속 상승세다. 미국 커머셜 매출 7.6억 달러로 YoY 149% 증가, 전분기 133%에서 재가속, 시장 우려였던 성장 둔화 논란을 해소시켰다. 미국 정부향 매출도 8.1억 달러로 90% 성장하며 가속화를 이어갔다. 미국 전체 매출이 15.7억 달러(+115% YoY, +23% QoQ)로 전사 매출의 81%를 차지했다. 해외사업은 커머셜 매출 1.8억 달러(+26%), 정부향 매출 1.8억 달러(+42%)를 기록했다. TCV 계약체결은 34억 달러(+49%), RPO 49억 달러(+103% YoY, +10% QoQ)를 달성했다.

2026년 가이던스 매출 성장 82%, 조정 OPM 60%로 상향조정

3분기와 연간 가이던스 상향폭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21.6억 (+83%), 조정 OPM 59.9%(+9.1ppt)로 컨센을 각각 8.5%, 2.5ppt 상회했다. 조정 OPM 가이던스가 2분기 대비 낮은 것은 3분기에 신규 입사, 마케팅 캠페인 개시 등 계절성 때문이다. 2026년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액 81.5억(+82%), 조정 영업이익 48.9억(OPM 60%)로 기존대비 각각 6.5%, 10% 상향조정했다. 매출 성장률 기준 기존 71%에서 82%로 11ppt 상향으로 동사 기준 사상 최대 상향폭이다. 미국 커머셜 매출에 대한 전망은 기존 '120% 이상 성장'에서 '134% 이상 성장'으로 상향하며 34.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Rule of 40' 전망은 기존 129에서 142로 13pt 상향되었다.

미국 사업 모멘텀 지속 기대하는 이유

미국 사업 선전 이유는 크게 4가지다. 1)기업의 'Sovereign AI' 인식 확대가 신규 수요 창출 속도를 높이며 미국 커머셜 TCV 21.3억 달러(+153% YoY, +81% QoQ)로 직결되었다. 기업이 데이터, 로직, 보안 통제권을 직접 소유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기존 고객의 계약 확대 지표인 NRR이 157%로 압도적이다. 파일럿 단계에서 전사 확대 전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며 PLTR의 AIP 경쟁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판단된다. 3) PLTR의 AIP 스택과 FDE 실행력이 여전히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4) 미국 정부향 기존 프로그램 실행과 신규 수주가 작동하며 성장률이 가속됐다. 미국 국방부 관련 TTM 매출은 국방 예산의 25bp 미만으로 침투 여지가 크다. AI 모델사와의 경쟁 속에서 커머셜 수요 변화 가능성, 밸류에이션 부담 등이 영향을 주며 주가는 YTD -29%로 부진한 상황이다. 1)미국 정부 & 커머셜 시장에서 입증된 경쟁력, 2) 선형지표(미국 커머셜 TCV +153%, RDV +124%)가 지지하는 향후 실적 전망과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 3) 예상보다 빠른 매출 성장과 강력한 수익성 지표 (OPM 62%, FCF마진 63%)를 고려하면 주가 반등 여지는 높다고 판단된다. 실적 발표 전 주가는 12M FWD PSR 35배 수준이며, 시장 평균 목표주가(193)는 최근 2년 평균 멀티플인 54배 수준이다.

2026년 7월 29일 | Global Equity

Seagate Tech PLC. (STX.US)

수요와 가격결정력, 생산효율성 강화의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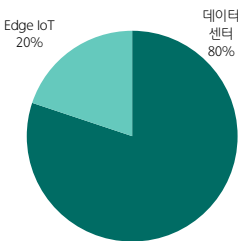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044.1 USD
CP(7.28) 747.3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정보기술
세부 분류	기술 하드웨어 & 장비
홈페이지	www.seagate.com
시가총액(십억USD)	167.6
시가총액(조원)	242.4
52주최고/최저(USD)	1145/138.3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2.89
BLACKROCK	7.4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7.0) 68.7 389.5
상대	(18.0) 62.3 372.8

매출구성



투자지표	2025	2026	2027F	2028F
매출	9,097	12,195	17,054	22,864
영업이익	2,127	4,450	8,181	12,608
순이익	1,733	3,538	6,588	10,411
EPS	8.10	15.58	28.22	43.28
EPS(YOY, %)	527.9	92.4	81.1	53.4
ROE(%)	-	-	138.5	110.1
PER(배)	19.7	58.5	26.5	17.3
PBR(배)	-	-	26.5	12.3
DPS	2.86	2.94	3.0	3.1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외형 확장과 이익 개선으로 시장참여자들의 걱정 완화

시게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알파벳 등의 공격적인 자본지출에도 AI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큰 이유는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이다. 시게이트는 강력한 수요 덕분에 가격 결정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익이 좋은 사업부의 매출 확대, 신제품의 생산효율성 등으로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 향상된 이익은 현금 흐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게이트 실적에서 확인한 강력한 수요는 다른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FY 4Q26 실적과 가이드언스에서 견조한 증장기 수요 가시성도 제시했다. 데이터센터/클라우드용 HDD(Near-line) 물량 배정 구간이 2027년에서 2028년까지로 한 해 더 늘었고, 다수 고객이 계획 기간을 2029년 이후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객들이 장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신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시게이트는 SK하이닉스와 공동 발간한 백서를 통해 추론과 에이전틱 AI 워크로드가 하드디스크로 이어지는 흐름을 처음으로 상세히 설명하며 피지컬 시가 다음 단계 수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향후 추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FY 4Q26 실적:

시게이트의 FY 4Q26 실적은 매출액 36억 달러(YoY +48.5%, QoQ +16.6%), 영업이익 16억 달러(YoY +153.0%, QoQ +38.7%), EPS 5.7 달러(YoY +123.9%, QoQ +39.4%) 등이다. 각각 FactSet 컨센서스를 3.1%, 10.3%, 12.0% 상회했다. 총 출하 용량은 218 EB(YoY +34%) 중 데이터센터/클라우드 HDD 출하량은 약 90%인 195 EB다. 시장 컨센서스(190 EB)를 상회했다.

매출총이익률은 52.7%(YoY +14.8%p, QoQ +5.7%p), 영업이익률은 44.6%(YoY +18.4%p, QoQ +7.1%p)다.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긍정적이다. 이익이 좋은 고용량 데이터센터/클라우드 HDD 제품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Mosaic 3에서 Mosaic 4로의 전환이 수익성에 추가로 기여했다. 용량을 늘린 고가의 제품을 더 높은 단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대비 강한 수요 덕분에 예상보다 많았던 출하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고 CFO는 설명했다. 개선된 수익성 덕분에 재무구조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잉여 현금흐름은 11.2억 달러(QoQ +17%)로 10년래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약 3억 달러 수준의 부채를 상환했으며, 순레버리지 비율은 0.4배로 개선됐다.

2026년 7월 30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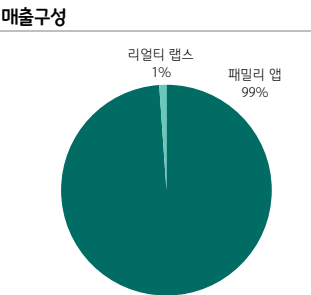
Meta Platforms Inc. (META.US)

본업은 양호했지만 FCF는 급감

미국

TP(컨센서스) 812.50 USD
CP(7.29) 585.61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정보기술		
세부 분류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facebook.com		
시가총액(십억USD)	1,486.5		
시가총액(조원)	2,141.2		
52주최고/최저(USD)	796.25/520.26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Inc/The	9.21		
Blackrock Inc	7.69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1	(20.7)	(15.8)
상대	5.8	(25.7)	(30.7)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64,501	200,966	253,218	302,671
영업이익	69,380	83,276	90,486	105,423
순이익	79,050	80,885	99,466	105,218
EPS	30.24	31.42	38.46	42.55
EPS(YOY, %)	60.5	3.9	22.4	10.6
ROE(%)	37.6	30.2	31.6	25.1
PER(배)	24.4	22.5	15.2	13.8
PBR(배)	8.1	7.7	4.9	3.8
DPS(USD)	2.00	2.00	2.2	2.2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강재규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FCF 감소 & 아쉬운 매출 가이드نس

메타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급락했다. 매출 가이드نس 부진과 현금흐름 악화 때문이다. 2분기 매출 자체는 견조했지만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로 현금흐름이 YoY -91% 급감했고, 비용이 증가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3분기 매출 가이드نس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메타는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 하단을 상향 조정하며 AI 투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메타는 컴퓨팅 자체를 판매하는 것(네오클라우드형 모델)보다 그 위에서 구동되는 AI 모델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쪽의 마진이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컴퓨팅 직접 판매 옵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제품 전략 측면에서는 지난달 출시한 Muse Spark 1.1와 Muse Image를 통해 Meta AI 일일 이용자 수가 60%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Muse Spark는 API로 외부 개발자 및 파트너 채널로 배포를 확대하고, Muse Image는 광고주 대상 크리에이티브 도구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컨센서스 하회한 FY 2Q26 순이익

메타의 FY 2Q26 실적은 매출액 608억 달러(YoY +28.0%, QoQ +8.0%), 영업이익 188억 달러(YoY +2.7%, QoQ -8.3%), 순이익 158억 달러(YoY -13.6%, QoQ -40.8%), EPS 6.18 달러(YoY -13.4%, QoQ -40.8%)다.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지만 순이익과 EPS는 Factset 컨센서스를 각각 14.7%, 14.0% 하회했다.

총비용은 420억 달러로, YoY +55% 급증했다. 항목별로는 매출원가 113억 달러(YoY +34.9%), 일반 관리비 39억 달러(YoY +47.3%), 마케팅 및 판매 관련 비용 34억 달러(YoY +15.2%), 연구개발비 198억 달러(YoY +53.1%) 등이다. 인건비, 인프라 비용, 소송, 서드파티 AI 토큰 비용 확대 등이 비용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충당금 24억 달러와 퇴직급여 12억 달러 등 총 36억 달러의 일회성 항목이 이번 분기 비용에 포함됐다. 일회성 항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YoY +9% 증가했다. 이번 분기 이익 부진이 매출 부진이 아닌 일회성, 구조적 비용 요인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서버,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중심의 자본지출 311억 달러가 집행되며 잉여현금흐름이 7.8억 달러(YoY -90.8%, QoQ -93.7%)까지 급격히 축소됐다.

2026년 7월 29일 | Global Equity

엔페이즈에너지(ENPH.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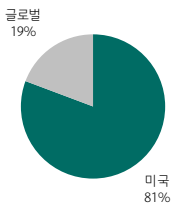
SST는 빠른 응답 시간으로 차별화 목표

미국

TP(컨센서스) 49.78 USD
CP(7.28) 36.32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enphase.com
시가총액(십억USD)	4.8
시가총액(조원)	7.0
52주최고/최저(USD)	73.7/25.8
주요주주 지분율(%)	
BLACKROCK	17.3
Vanguard Group Inc/The	12.4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23.7) (10.3) 3.9
상대	(24.7) (16.7) (12.3)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473	1,473	1,197	1,293	
EBITDA	158	158	234	313	
순이익	172	172	57	143	
EPS(USD)	3.0	1.4	2.0	2.3	
EPS(YOY, %)	0.0	(54.2)	51.1	13.8	
ROE(%)	14.1	14.1	11.1	14.4	
PER(배)	69.1	23.6	17.7	15.6	
PBR(배)	10.9	3.9	3.8	3.2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Bloomberg 시장예상지,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Q26 Re: 미국(-34%)의 부진을 유럽(+30%)이 상쇄

매출액 2.9억 달러(YoY -19.6%), EPS 0.46달러(-33.3%)로 모두 컨센에 부합했다. 159만개의 마이크로인버터와 113.8MWh의 배터리를 출하했다. 채널 재고는 분기 말 기준 배터리는 정상이지만 마이크로인버터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IQ 배터리는 국내생산요건과 FEOC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고객사의 ITC 수취가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성장이 미국의 부진을 상쇄했다. 미국에서는 높은 금리와 25D 세액공제 만료로 판매량이 YoY 34% 감소했다. 반면 유럽 판매량은 30% 증가했는데, 변동 요금제와 VPP(가상발전소)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터리 부문에서 호조를 보였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2026년 말 순계량제가 폐지될 예정으로 자가소비가 증가하며 배터리 설치 건수가 2분기에 1분기 대비 102% 급증했다.

SST의 차별화는 ‘빠른 응답 시간’에서

4월 공개한 신제품인 IQ SST는 15kV 및 35kV의 중전압 유틸리티 그리드와 직접 연계되며 800V DC로 출력한다. 현재 기존 전력 배전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경쟁 업체가 SST를 출시하고 있어 엔페이즈는 IQ SST의 경쟁력을 빠른 응답 시간에서 찾고 있다. 1밀리초 미만 단위로 응답이 가능해 굳이 별도의 UPS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ESS는 데이터센터의 블랙스페이스로 이동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타임라인은 대부분의 경쟁사와 동일하게 2028년 양산을 전망하고 있어 실적 기여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FCC의 미국 내 중국산 인버터 금지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소형 상업용 부문에서 3분기 1,000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으며 연말로 갈수록 수치는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주택용 태양광 바닥 다지는 중, 추가 반등은 시간 필요

6월 미국 주택용 태양광 허가 건수는 5월 대비 4% 증가했으며 업스트림 판매는 5%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두 수치 모두 YoY 30% 낮은 수준이다. 태양광 업계는 여전히 가정용이 아닌 ESS와 상업용 태양광에서 긍정적이다. 6월 상업용 태양광 허가 건수는 YoY 36% 증가했다. 3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QoQ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터리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모멘텀 지속되며 130~150MWh 출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자 소유 방식(TPO)인 Propel은 최근 신규 설치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SST 등 신제품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12M FWD PER 17배로 5년 내 최하단을 기록하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 다만 본격적 추가 반등은 금리와 정책을 통한 본업(주택용 태양광)의 회복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7월 31일 | Global Equity

퍼스트솔라 (FSL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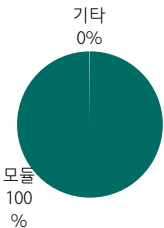
Section 232를 기다리며

미국

TP(컨센서스) 259.15 USD
CP(7.30) 206.01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firstsolar.com
시가총액(십억USD)	22.1
시가총액(조원)	31.8
52주최고/최저(USD)	320.9/171.9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2.61
블랙록	11.78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2.7) (8.7) 15.0
상대	(11.9) (15.8) (1.9)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5,219	5,219	5,062	5,930
영업이익	1,597	1,597	1,871	2,587
순이익	1,528	1,528	1,846	2,484
EPS(USD)	14.2	14.8	17.6	23.8
EPS(YOY, %)	0.0	4.5	18.4	35.6
ROE(%)	18.4	18.4	17.4	19.8
PER(배)	13.9	17.6	11.7	8.6
PBR(배)	2.4	2.9	2.0	1.6
배당률(%)	0.0	0.0	0.0	0.0

자료: 퍼스트솔라, Bloomberg 시장예상지,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Q26 Re: 45X 대상 모듈 비중 증가로 GPM 57%

매출액 10.6억 달러(YoY -3.7%)로 컨센에 부합했으며 조정 EPS는 3.92달러(+23.3%)로 컨센(2.78달러)을 상회했다. GPM 57%(+12%p)는 45X 세액공제 대상 모듈의 비중 증가, 물류 비용 감소, IEEPA 관세 관련 혜택(약 8,900만 달러 추정)에서 기인했다. ASP는 와트당 0.36달러로 지난 분기 0.35달러와 유사하다. CuRe 로 인한 가격 프리미엄은 이제 막 고객 통지를 시작해 2026년 반영될 효과는 제한적이며 2027년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에 대한 지속 투자로 R&D 비용은 7,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Section 232는 여전히 8월 공개 기대감 높아

계류 중인 Section 232 폴리실리콘 관세는 최우선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8월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1) 최저수입가격에 추가로 관세가 붙는 구조, 2)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수입분은 면제, 3) 쿼터제의 도입 등이 있다. 현재 Section232를 관망하며 대기중인 물량이 상당히 남아있어 Section 232 결정시 계약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수주에서는 ASP를 높이고 있는 점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 펩 1.8GW 캐파에 대해서도 Section 232에 따라 완제품의 국제판매 지속, 미국 내 마감공정 추가 증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Section 232 대기 중

하반기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펩의 1단계가 생산 개시될 예정이다. 완공시 해외펩에서 초기 생산된 모듈을 위해 최대 3.5GW의 마감 생산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45X 세액공제를 최적화할 수 있다. FY2026년 연간 가이던스는 모듈 판매(17.0-18.2GW)와 매출액(49-52억 달러)를 모두 유지했다. 현재 백로그 45GW 중 41GW는 어떤 형태로든 국내 생산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퍼스트솔라는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 중 비중국 익스포저가 가장 높다. 국내 제조 생산라인은 2028년까지 상당 부분 계약이 확정되어 있어 물량과 가격 측면에서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다. 6월로 기대했던 Section 232의 결정이 한차례 더 연기된 이후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 12MF EV/EBITDA 6.0배로 향후 ASP 추가 상승 고려할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2026년 8월 4일 | Global Equity

이턴코퍼레이션 (ETN.US)

데이터센터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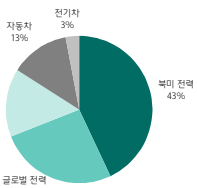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473.17 USD
CP(8.3) 438.23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eaton.com
시가총액(십억USD)	170.2
시가총액(조원)	243.6
52주최고/최저(USD)	438.7/311.9
주요주주 지분율(%)	
뱅크	9.85
블랙록	7.8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0.0 20.9 14.9
상대	9.1 16.0 3.9

매출구성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7,448	27,448	32,525	36,132
영업이익	5,209	5,209	6,451	7,589
순이익	4,087	4,087	4,392	5,660
EPS(USD)	12.1	11.1	13.5	15.8
EPS(YOY, %)	0.0	(8.2)	17.7	17.3
ROE(%)	20.2	21.6	23.3	24.7
PER(배)	33.3	28.7	32.5	27.7
PBR(배)	7.1	6.4	7.7	6.7
배당률(%)	1.1	1.3	1.0	1.1

주: 조정 기준
자료: Eaton, Bloomberg 시장 예상치, 마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2Q26 Re: 미국 캐파 증설 효과 양호, 15년치 데이터센터 수주잔고

매출액 85.3억 달러(YoY +21%, Organic +14%), 조정 EPS 3.15달러(+7%)로 컨센(81.6억 달러, 3.07 달러)을 모두 상회했다. 매출 성장률에는 Boyd 인수 효과 7%p가 반영되었다. 1분기에서 2분기로 전환하며 역대 가장 큰 분기별 생산 출력 확대가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 캐파 증설의 효과로 매출은 Organic 기준 +18%, 마진은 190bp 증가했다. 2분기 IEEPA 환급으로 인한 영향은 300만 달러 미만으로 EPS 기준 0.1달러 미만이다.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수주잔고는 307GW로 2025년 속도 기준으로 15년치에 해당한다. 이 수주잔고 중 20%가 단기적으로 전환되며 대부분은 2028년 이후 인도로 이어질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를 넘어서는 구조적 전력 트렌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전력 부문은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상업/기관, 유틸리티, 산업 수요가 모두 견고했다. 2분기 전체 전력 수주는 mid-to-high-teens를 달성했다. 데이터센터를 넘어서 리쇼어링과 전력망 현대화 포트폴리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미 전력 부문 매출 성장은 +18%로 주로 데이터센터(Organic 기준 +65%) 강세에서 기인했다. 전년 대비 마진 하락은 투입 비용 증가 때문이며 2분기와 3분기 초에 취한 가격 인상 조치로 하반기에는 대체로 가격 상승분과 원가 상승분이 수렴하는 중립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전력 매출은 +44% 증가했으며 Boyd 인수로 인한 25%가 포함되었다. 4분기로 예정했던 가격 인상을 3분기로 앞당겼다. 항공우주 매출은 +13%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상업용 OEM 부문이 두드러졌으며 Ultra PCS 인수가 6%p의 성장 기여와 마진 증익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3분기 EPS 가이드스 컨센 부합

FY2026년 연간 Organic 매출 성장률 가이드스는 중간값 기준 +12%으로 다시 한번 200bp 상향조정했다. 북미 전력(+15%, 200bp 상향조정)과 글로벌 전력(+12%, 450bp 상향조정)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3분기 조정 EPS 가이드스로 3.51달러(YoY +14%)를 제시하며 컨센에 부합했다. 개별적인 가격 인상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가격 인상 효과는 하반기에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우려했던 북미 전력 OPM은 원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여전히 낮으나 27.5%로 QoQ 190bp 증가했다. 800V DC 관련하여 SST는 고객사로부터 기술적으로 앞서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DC 차단기와 냉각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800V DC 통합 솔루션 패키지 판매에 유리하다. 글로벌 전력기기 섹터 Top-pick을 유지한다.

중국

Top Picks 및 관심종목

북방화창(002371.CH)

TP 754.38 CNY | CP 715.00 CNY

AMEC(688012.CH)

TP 357.71 CNY | CP 383.00 CNY

*CP 2026년 7월 28일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2026년 7월 28일 | Global Equity

중국 반도체

메모리 IPO 이후 증설 가속화는 로컬 장비주에 수혜

향후 2~3년 대형 메모리/파운드리들 공격적 증설 예정

올해와 내년 중국의 양대 메모리 기업인 CXMT와 YMTC가 모두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마치고 공격적인 증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2~3년간 로컬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수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CXMT는 DRAM 웨이퍼 생산능력을 2025년 말 약 월 27만장에서 2028년 월 50만장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 IPO가 예상되는 중국의 3D NAND 1인자인 YMTC도 전체 생산능력이 2025년 월 18만장에서 2028년 월 40만장 수준으로 확대가 전망된다. 중국 내 AI 칩 공급 부족과 로컬 반도체 채택 증가로 파운드리 기업들의 증설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의 AI 모델 개발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AI 인프라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미국의 규제와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국산 AI 칩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SMIC의 연간 증설 규모는 2024년/25년 월 40만장/65만장에서 2026~28년 평균 월 98만장 수준으로 가속화가 전망된다.

YMTC/CXMT 신규 팹 장비 국산화를 크게 상승

중국 양대 메모리 기업의 신규 팹에서 장비 국산화 흐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YMTC의 우한 3공장 장비 국산화율은 약 60%, CXMT의 상하이공장 장비 국산화율은 약 35%로 2025년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21%)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YMTC는 3D NAND 생산라인 Capex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각, 증착 장비와 더불어 하 이브리드 본딩 장비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해 로컬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북방화창의 메모리 기업향 수주는 올해 YoY 50% 이상 증가가 전망된다. 중국 식각 장비 기술 개발을 선도 중인 AMEC 또한 메모리 기업과 선단공정 파운드리 증설로 2026년 전체 수주 증가율이 YoY 50%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2023~24년 연간 20% 고성장 이후 2025년 YoY +5%대, 1H26 YoY -10%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노광장비 수입액도 2025년과 1H26 기준 과거 대비 크게 축소된 흐름을 보였다.

이익 고성장기 진입한 북방화창/AMEC 추천

2026~28년 북방화창과 AMEC은 메모리 기업과 파운드리향 첨단 장비 수주 증가로 이익 고성장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북방화창의 순이익은 2025년 YoY 역성장장에서 2026~28년 연평균 40%, AMEC의 순이익은 2024~25년 YoY 10%대 성장에서 2026~28년 연평균 64%로 가속화가 전망된다. 북방화창/AMEC의 주가는 올해 연초 이후 7월 고점까지 104%/73% 급등한 이후 최근 20% 수준의 조정을 받아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낸 상태다. 2027년 예상 P/E는 각각 48배/69배로 과거 3년 평균(43.5배/68.6배) 수준이다. 8월 말 2분기 실적 호조세가 확인된다면 주가는 재차 강세 흐름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7월 31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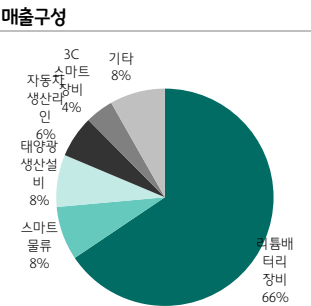
선도지능(300450.CH)

ESS와 전고체 배터리가 여는 새로운 성장

중국

TP(컨센서스) 55.42 CNY
CP(7.30) 33.38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선전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기계
홈페이지	www.leadintelligent.com
시가총액(십억CNY)	54.9
시가총액(조원)	11.6
52주최고/최저(CNY)	69.72/25.22
주요주주 지분율(%)	
LHASA XINDAO VEN	20.07
Shanghai zhucuo	5.5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8.0) (42.2) 31.1
상대	7.3 (39.1) (8.2)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1,773	14,358	18,989	24,085	
영업이익	87	1,739	2,741	3,794	
순이익	286	1,564	2,503	3,464	
EPS(CNY)	0.2	1.0	1.5	2.1	
EPS(YoY, %)	(83.7)	448.9	48.2	37.2	
ROE(%)	2.4	12.6	17.0	19.6	
PER(배)	108.8	49.5	22.3	16.3	
PBR(배)	2.7	6.0	3.4	2.9	
배당률(%)	0.3	0.6	1.4	1.8	

자료: Bloomberg, 마나증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배터리 CAPEX 둔화 우려로 주가 조정

선도지능은 글로벌 1위(2024년 시장 점유율 16%) 리튬이온 배터리 장비 업체로 CATL, Tesla, LG Energy Solution 등 글로벌 주요 배터리 및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CAPEX 회복 기대감으로 선도지능 주가는 2025년 하순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CAPEX 피크아웃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되며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다. 실제로 CATL, CALB, EVE 에너지, 고선하이테크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투자 계획을 종합하면 전체 배터리 CAPEX는 2025년 YoY +22%에서 2026/27년 YoY +13%/-4%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전기차용 배터리 증설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과 투자 효율 개선으로 단위 생산능력(GWh)당 투자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SS 및 전고체 중심의 수주 확대 기대

EV 중심이던 배터리 투자 구조가 ESS와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선도지능은 업계 전체 CAPEX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주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진에 따르면 2025년 신규 수주에서 ESS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였으며, 2026년에는 약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고체 배터리 역시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이다. 선도지능은 전고체 배터리 생산 전 공정을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소수의 장비 업체 중 하나로, 건식전극(Dry Electrode), 전해질막(Electrolyte Membrane), 고속 적층(Stacking), 고압 화성(Formation) 등 핵심 공정 장비를 모두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미국·유럽·일본·한국 등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를 대상으로 장비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고체 장비 수주는 2025년 약 10억위안에서 2026년 약 20억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전고체 장비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장비(2025년 GPM 35%) 대비 높은 약 50%의 매출총이익률(GPM)이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고체 장비 매출 비중이 확대에 따라 전사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주가는 PER 밴드 하단, 수주 회복에 따른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

2026년 수주 확대를 견인할 핵심 분야는 유럽 가정용 ESS와 중국 AI 데이터센터용 ESS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선도지능의 연간 신규 수주 증가율은 YoY +40~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와의 전략적 협력, 미국 고객사향 휴머노이드 로봇 장비 수주 등 신규 성장 모멘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두 달간 주가는 33% 조정 받으며 역사적 PER 밴드 하단 수준까지 하락했다. 배터리 CAPEX 피크아웃 우려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만큼 향후 신규 수주 회복과 신사업 성과가 확인될 경우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HANA Global Weekly

Tel: 02-3771-사내번호 E-mail: @hanafn.com

이름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글로벌투자분석실

글로벌 매크로· 투자전략팀	이재만	실장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경환	팀장	중국/신흥국전략	7616	khstyle11
	이경수	수석연구위원	Quant	7518	gang
	김근아	선임연구위원	신흥국전략	7698	geunak
	이철연	선임연구위원	Global Quant	7723	lch2678
	김성운	선임연구위원	중국분석	7520	seongeunk
	손일수	연구원	국내/선진국투자전략 RA	3629	ilsooson
채널전략팀	김두연	팀장	국내외 주식시황	7509	kimdoo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강윤영	선임연구위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박준우	선임연구위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최육	연구원	국내외 주식 시황 RA	7477	wookchoi

해외주식분석실

박승진	실장	글로벌 ETF	7761	sj81.park
김재임	수석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7793	jamie
백송혜	수석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7521	sh_baek
강재구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3386	jaekoo.kang
송예지	선임연구위원	중국기업분석	8143	yeajisong
김시현	선임연구위원	미국/선진국기업분석	7513	sihyun_kim
장지영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ETF	3669	chiyoung.jang
안기량	연구원	중국기업분석 RA	7736	giryangan
송종원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7261	1223sjw
이재은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3743	jaeeunlee
신민건	연구원	글로벌 ETF RA	3269	mingun.shin

본 회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